刊本類『交隣須知』에 의한 韓日近代語의 通時的研究*

- 日本語의 文末表現을 중심으로 -

片 茂 鎭**
(e-mail: mjpyon@dku.edu)

目 次

1. 시작하기
2.『交隣須知』의 刊本類
3.『交隣須知』의 対訳性
3.1. 普通体文의 文末表現
3.1.1 名詞文
3.1.2. 述語文
3.2. 恭遜体文의 文末表現
4. 마무리

1. 시작하기

『交隣須知』는 본래 18세기 초기에 対馬藩儒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이다. 本書는 20세기 초두에 걸쳐 일본 내에서 한국어 학습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 体裁가 한국어와 일본어의 対訳形式으로 되어 있고, 더구나 약 200여 년 동안 비슷한 내용을 본문 텍스트로 하는 13종의 異本이 존재하는 관계로 両国語의 通時的 言語資料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交隣須知』

* 본 연구는 2011년 대학연구비로 작성되었음.
** 단국대 교수, 일본어학(일본어사)

www.kci.go.kr

의 언어에는, 각각 성립한 시기의 언어현실을 반영한다는 通時態의 측면이 있는 한편으로, 다른 이본을 답습한다는 언어의 보수적인 면도 인정된다. 前者를 본서가 가지는 언어의「時代性」이라고 한다면 後者는 그것의「保守性」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와 같은『交隣須知』의 언어에는「対訳性」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1]. 이「대역성」이란 주로 한국어에 이끌린 일본어의 표현적 요소를 가리키는 말인데[2], 대략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와 混在하는 것으로 본서의 특징적인 一面이다. 따라서『交隣須知』를 통시적 언어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역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本稿에서는 이 대역성과 관련하여, 刊本類『交隣須知』의 일본어에 대하여 文末表現, 그 중에서도 특히 名詞文의 叙述形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交隣須知』의 刊本類

初刊本은 메이지(明治) 14년(1881)에 에도(江戸)시대로부터 写本인 채로 전해 내려온『交隣須知』를 쓰시마(対馬) 사람 우라세(浦瀬 裕)가 校正·編集하고, 호사코(宝迫繁勝)가 인쇄하여 日本活字本으로 처음 간행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앞선 메이지 14년판의 誤脱字나 오래된 말 등을 수정·보완한 형태로 역시 우라세가 重修·補正하고, 나카타니(中谷徳兵衛)가 인쇄 간행했다. 이것이 再刊本이다. 그 후 20여 년이 경과하여 초간본은 물론 재간본도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 학습서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메이지 37년(1904)에 마에마(前間恭作)와 후지나미(藤波義貫)의 共訂으로『交隣須知』를 校訂·刊行하기에 이르렀다. 校訂本의「緒言」에는 그간의 사정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 일부분을 인용한다.

> いうまでもなく原本の最も非難を受くる所は、措辞の意義をなさゞるもの、方言、又は謬りたる字句の多きが為め課本たるに耐へさる点にありしか故に、余輩校正の第一義は此等を改竄し修正するにありしかども此外に又本書は二百年間幾回となく、増補添入を経なが

1) 편무진(2006)「により考」『表現研究』84 pp.38-46 (일본·表現学会)
_____(2006)「『交隣須知』日本語の特殊性」『比較文化研究』74 pp.1-10 (日本比較文化学会)

2) 이 対訳性에 대하여 필자는 주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直訳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본어의 誤用的 要素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한국어의 표현적 가치를 반영한 일본어 표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ら、題目の分類に至りて一度の整理をもなされしことなく雑然秩序なき状態に陥り居るを以て、根底より之を整頓し、又書中和訳は直訳に係り意義判明ならざる上、当国人の日本語を学ふものゝ為め応用せられざる不利もあるが故に、之は全然改作して意訳の法をとりたり。・・・

즉 原本(初刊本) 상의 対訳語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나 方言, 그리고 틀린 字句 등을 개정함과 동시에 部門이나 項目의 정리, 直訳風의 일본어를 意訳風으로 바꾸는 등의 改作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본서의 한국어에 대하여 시데하라(幣原 坦)는「批評」(「校訂交隣須知」の新刊)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新校訂本は韓国現今の口語をそのまゝに諺文に描するよりも寧ろ諺文の形体を壊さゞらむことに意を用ひたり是亦旧本(明治16年の再刊本 ; 引用者注)と異る点也例へば「広うございます」を旧本には너르외다[3]とありしが新本には넓으외다とし・・・然るに字音に至りては本来の正音を棄てゝ皆口語にあらはるゝ音のみを取れり例へば부어(鮒魚)とせずして붕어とし로어(鱸魚)とせずして농어とし렁(冷)とせずして닝としたる等皆是也是亦学習者を惑はしむる・・・

그러나 당시에는 한국어가 形態素表記에 의한 分綴表記가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보수적인 再刊本에 대하여 교정본은 당시의 표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字音語에 대해서도 口語가 채용되는 등, 교정본은 당시의 일반적인 언어현상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전통을 중시해 온 시대에 전해 내려온 사본류,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官版의 刊本類와는 또 다른 言語史的 資料性(時代性)이 이 교정본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3.『交隣須知』의 対訳性

우선 韓国語文의 경우, 述語의 위치에 名詞+叙述格助詞 '이다'의 어형이 오는 体言文도 있지만, 대개는 動詞(補助動詞)나 形容詞(補助形容詞)로 끝나는 動詞·形容詞文이다. 한편 일본어의 경우는 술어로서 사용되는 動詞, 形容詞, 形容動詞, 名詞+助動詞類가 일반적이다. 이것들을 각각 動詞文·形容詞文·形

www.kci.go.kr

3) 논문에는 '너르외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르외'의 잘못이다.

容動詞文 · 名詞文이라고 한다. 가령『交隣須知』의 첫 번째 항목은《天》을 標題語로 하는 다음과 같은 用例文인데[4],

[1001]

<苗/一01a> 天 하ᄂᆞᆯ이 과연 청명ᄒᆞ외
天ガ イカニモ アキラカニゴサル

<ア/一01a> 天 하ᄂᆞᆯ이 과연 청명(清明)ᄒᆞ외
天ガ イカニモ 明ニコサル

<対/一01a> 天 하ᄂᆞᆯ이 과연 청명ᄒᆞ외
天ガ イカニモ 明カニコザル

<武/一01a> 天 하ᄂᆞᆯ이 과연 청명ᄒᆞ외
天ガ イカニモ アキラカニゴサル

<初/一01a> 天 하늘이 춤 청명허외다
天ガ 真ニ 清明ニゴザル

<校訂/001> 天 하ᄂᆞᆯ이 춤 청명(清明)ᄒᆞ외다
天が 実に よくはれてゐます。

이 예문만을 보면, <ア><対><武>와 같은 增補本類(增補祖本系)의 한국어와 일본어문은 우선 古写本類(原祖本系)에 속하는 <苗>의 그것을 답습하고, 교정본은 초간본의 한국어문을 답습하면서 일본어는 현대어적인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우선 한국어의 경우, '과연<춤'과 같은 어휘적 변천은 별도로 하고, 문말 표현형식은 모두 '청명ᄒᆞ외'로서 어미가 '-외'로 끝나는 写本類에 비하여 刊本類에서는 그것에 '-다'가 추가된 '-외다'로 되어 있다. 이 終結語尾 '-외'는 17세기에는 対等系列에서 感歎叙述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18세기에 들어서는 빈도가 줄어들어 19세기에는 거의 소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염광호:235).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의 문헌자료에 속하는 초간본의 '-외다'는 前代의 '-외'를 대신하여 '-외다'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언어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의 19세기 중반에 속하는 增補本類에는 여전히 古写本類와 같은 '-외'이다. 전자를 言語의 時代性, 즉 당시의 언어현상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言語의 保守性, 즉 前代의 문헌(언어)을 답습

4) 標題語의 [ ]는 項目의 고유번호, < >는 出典으로 /의 좌측은 異本名의 略称, 우측의 漢数字는 巻数와 쪽수를 나타낸다(拙著『諸本対照 交隣須知』에 의함). 初刊本과 校訂本은 각각 <初>와 <校訂>으로 표시하고, 그밖의 이본들은 다음과 같이 略記한다.
<苗>: 苗代川本(19세기초 筆写?), <ア>: Aston本(1846年写), <対>: 対馬本(1854年写?), <武>: 武藤本(1873年写), <文>: 文政本(1827年写), <小>: 小田本(1795年写), <ソ>: 서울大本(1868~1873年写)

www.kci.go.kr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를 보자.

[1494]

<苗/一37a> 詐 그ᄂᆞᆫ 간사(姦詐)ᄒᆞ여 못 부릴 놈이올레
アレハ ワルカシコフテ ツカワレルモノテハコサランヌ

<ア/一42a> 詐 그 쟈ᄂᆞᆫ 간사ᄒᆞ여 못 부릴 놈이라
アレハ セチガシカウテ ツカワレヌ ヤツジャ

<対/一42a> 詐 그 쟈ᄂᆞᆫ 간사[시]ᄒᆞ여 못 부릴 놈이올쇠
アレハ セチガシカウテ ツカワレヌ 者テゴサル

<武/一42b> 詐 그 쟈ᄂᆞᆫ 간사ᄒᆞ여 못 부릴 놈이오니
アレハ セチカシカウテ ツカワルヤツデコサリマセヌ

<初/一33b> 詐 그 쟈는 간사(姦詐)ᄒᆞ야 못 부릴 놈이라
コノ 者ハ セチガシコウシテ ツカハレヌ ヤツジャ

<校訂/285> 詐 그 쟈(者)ᄂᆞᆫ 간사(奸詐)ᄒᆞ여 못 부릴 놈이외다
こいつは 悪がしこくて 使ひやうない やつでございます。

여기서는 한국어의 문말표현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형태를 분석해 보면, '-(이)올레' '-(이)올쇠' '-(이)오니' '-(이)외다'와 '-(이)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는 공통적으로 '-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오-'는 공손한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비교적 待遇度가 높은 표현에 속한다. 한편 후자의 '-라'는 下待의 서술어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우도의 차이는 対訳의 일본어문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의 공손한 표현에는 일본어도 또한 공손한 표현인「でござる」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의 본문 분석 결과는 그와 같은 対訳性을 나타내고 있다.

편의상, 일본어의 문말표현은 校訂本의 語形을 중심으로 분류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3.1. 普通体文의 文末表現

3.1.1 名詞文[5)]

아래 표는 校訂本의 普通体文, 즉「ダ」形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초간본에서의 한국어 어미와 그것에 대응하는 일본어 문말형식(助動詞)과의 대조표이다.

5) 여기서 '명사문'이란, 문말에서 명사에 「ダ」나 「デアル」로 대표되는 コピュラ(copula)가 접속하여 술어 역할을 하는 文의 형식, 즉 '名詞述語文'을 가리킨다.

刊本類 / 韓国語語尾	初刊本			校訂本			待遇度6)
	ジャ	デアル	デゴザル	ダ	デス	デゴザイマス	
-(이)다				●			下待
-(이)라	●	●		●			下待
-(이)니라		●	(●)	●			下待
-(이)로다	●	●		●			下待(感歎)
-(이)로고		●		●			下待(感歎)
-(이)로구(고)나		●		●			下待(感歎)
-(이)로세(셰/싀)	(●)		●				対等(感歎)
-(이)르세				●			対等
-(이)니				●			対等
-(이)외다				●		●	極上待
-(이)오니		●	●				上待
-(이)올세(셰)			●				上待
-(이)올레			●				上待
-(이)오					●		上待
-(이)올시다						●	極上待

*( )은 少数의 예

위의 표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한국어의 문말표현에 대한 일본어는 초간본에서는「ジャ · デアル · デゴザル」形으로, 그것이 교정본에서는「ダ」형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표의 上部에 위치하는 한국어 어미는 대체로 대우도가 낮은 下待 階称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들의 대역으로 선택된 일본어의 문말표현은「ジャ」나「デアル」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下部의 어미는 対等 또는 上待 表現으로 상대적으로 대우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일본어는「デゴザル」가 일반적이다.

우선, 이와 같은 한국어의 문말 어미에 대하여 교정본에서「ダ」가 아닌 것은 아래의 예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デアル」形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예는 대략 위의 표에 상응하고 있다.

[1502]

<苗/一37b> 皇帝 황뎨(皇帝)ᄂᆞᆫ 뎐하지쥬시오니
天下之主テコサリマスル

<初/一35a> 皇帝 황뎨는 텬하에 셩쥬ㅣ시니라
皇帝ハ 天下ノ 聖主デゴザル

6) 韓国語史에서 상대경어법은 하소서체,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의 5등급체계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나,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下待, 対等, 上待, 極上待로 분류한다.

<校訂/145> 皇帝 황뎨(皇帝)ᄂᆞᆫ 텬하(天下) 셩쥬(聖主)시니라
皇帝は 天下の 聖主である。

한편 초간본에서는 文語的인「デアル」体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3192]
<苗/三14b> 鑽 비븨ᄂᆞᆫ 나모 ᄠᅮᆷᄂᆞᆫ 거시라
キリハ 木ノ アナアケル モノチャ
<初/三27a> 鑽 활비비는 나무 ᄠᅮᆯ은 거시로다
マイギリハ 木ヲ トホス モノデアル
<校訂/214> 鑽 활부비ᄂᆞᆫ 나무 ᄠᅮᆯ으ᄂᆞᆫ 거시니라
舞錐は 木をとほす ものだ。
[1600]
<ア/一52b> 庶 얼ᄌᆞᄂᆞᆫ 쳡의게 나흔 ᄌᆞ식이라
ソシハ テカケニデキタ 子シャ
<初/一41b> 庶 셔ᄌᆞ는 쳡의게 나은 ᄌᆞ식이라
庶子ハ 妾ニデキタ 子息デアル
<校訂/094> 庶子 셔ᄌᆞ(庶子)ᄂᆞᆫ 쳡(妾)에게 나흔 ᄌᆞ식(子息)이니라
庶子は 妾に出来た 息子だ。

물론 다음의 예처럼, 前代의 사본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口語的 표현인「ジャ」의 예문도 일부 보이기도 한다.

[2045]
<苗/二09b> 狌 죡졉이 ᄭᅩ리 털로 ᄆᆡᆫ 붓시라
イタチノ ヲノ ケデ ユフタ フテジャ
<初/二04b> 狌 죡졉이 ᄭᅩ리 털노 ᄆᆡᆫ 붓시라
イタチノ 尾ノ 毛デ ユフタ 筆ジャ
<校訂/072> 狌 죡졉이 ᄭᅩ리 털노 ᄆᆡᆫ 붓시다
鼬の 尻尾の 毛で こしらへた 筆だ。

그러나 이와 같은 예는 매우 소수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라'의 대역으로서「じゃ」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교정본에서는 '-(이)다'이다.

이 '-다'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다'는 '-니라'와 함께 평서문의 종결어미(조사)로 중세 국어에서부터 사용되었던 것인데, 현대 국어로 오면서 점차로 '-다'

www.kci.go.kr

형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서술형으로서 '-니라'는 주로 문헌에서 사용되던 보수적인 문어 표현에서, '-라'는 당시 일반적으로 쓰던 구어 문장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홍종선:157). 그렇다면 우선 초간본에서 '-라'에 대해서는「ジャ」와「デアル」의 양 형태가 대역된 것에 비하여, '-니라'에는 주로 문어적인「デアル」가 대응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간본에서 여전히 명사문의 문말 어미로 '-다'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초간본 한국어의 보수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교정본에서는 당시의 언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7].

또한「ジャ」나「デアル」의 공손체인「デゴザル」는 '-오니' '-올세' '-올네'의 대역어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709]

<苗/二60a> 三緑 삼녹은 흔흔 치식이오니
ビャクロクハ タントアル サイシキジャ

<初/三14b> 三緑 삼녹(三緑)은 흔흔 치식(彩色)이오니
岩緑青ハ 多イ 画ノ具デコザル

<校訂/249> 三緑 삼녹(三緑)은 흔흔 치식(彩色)이니라
緑青は よくつかふ 絵具だ。

[3035]

<苗/三03b> 幅 너븨 좁ᄉᆞ와도 뎡비단이ᄋᆞᆸ도ᄉᆡ
ハヾガ セバウテモ ホンノヲリモノヂャ

<初/三18a> 幅 너븨 좁아도 ᄎᆞᆷ비단(緋緞)이올세
幅ハ セバクテモ ホンノオリモノデゴザル

<校訂/246> 幅 넓희ᄂᆞᆫ 좁아도 ᄎᆞᆷ비단일세
幅は せまいが ほんとの織物だ。

[1804]

<苗/二01b> 鶯 굇ᄭᅩ리가 버들 우희 ᄂᆞ니 조각々々 금(金)이올ᄉᆡ
ウグイスガ ヤナキノ ウヘニ トンテ 片々タル キンテゴザル

<初/一55b> 鶯 ᄭᅬᄭᅩ리가 버들 우희 노니 조각조각 금(金)이올네
鶯ガ 柳ノ ウヘニ 遊ビテ 片々タル コガネデゴザル

<校訂/079> 鶯 ᄭᅬᄭᅩ[ᄭᅬ]리가 버들 ᄉᆞ이에셔 노ᄂᆞᆫ 거시 조각조각 금일세
鶯か 柳の 間で 遊んでゐるのは 黄金の散ってるのを見る様だ。

7) 초간본에서 일반적인 합쇼체 서술형 어미는 '-외'인데, 이것이 재간본에서는 거의 '-외다'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재간본에서의 '-다'의 추가는 당시의 언어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www.kci.go.kr

이와 같이 초간본에서 한국어 '-오니' '-올세' '-올레'의 대역어로서「デゴザル」가 사용된 것은 편집자인 우라세(浦瀬)에 의한 일정한 편집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미에는 공통적으로 恭遜의 先語末語尾 '-오-'가 포함되어 있어 공손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라세가 느끼고 있었고, 그와 같은 한국어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당연히「デアル」보다는「デゴザル」쪽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해라체에 속하는 '-니라'에 공손한 표현인「デゴザル」가 대역된 예가 2,3개 보이지만, 대개는 존경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와 같이 쓰인 경우이다[8].

[1508]

<対/一44b>	皇后	황후ᄂᆞᆫ 황뎨 안ᄂᆡ시니라
		皇后ハ コクヲウノ 内室シャ
<初/一35b>	皇后	황후는 황뎨 안히시니라
		皇后ハ 皇帝ノ 妻御デゴザル
<校訂/145>	皇后	황후(皇后)ᄂᆞᆫ 황뎨(皇帝)의 곤위(坤位)시니라
		皇后は 皇帝の おつれあひだ。

결국, 초간본에서는 断定을 나타내는 문말표현으로서 문어적인「デアル」체를 기조로 하면서 구어적인「ジャ」와 공손한「デゴザル」를 채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의 대역으로서의 일본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한국어의 표현가치(대우도)의 차이를 반영한 일본어,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의 대응관계를 고려한 흔적을 인정할 수 있다.

---

8) 초간본에서 이 존경의 '-시-'가 대역어에 반영된 예가 1예 보인다.

<初/一05b> 牽牛 견우는 직녀와 냥쥬ㅣ니 텬샹 별이시니라
牽牛ハ 織女ト 両主デ 天上ノ 星デゴザナサル

보조동사로 「ゴザナサル」를 사용하여 존경의 문말표현을 나타낸 예이다. 그리고 이「ゴザナサル」는 '계시다'의 교체형 존경동사로 『交隣須知』에서 자주 사용된다.

[2473]

<苗/二42b>	京	셔울은 님금 계신지라
		ミヤコハ シュクンノ ゴサナサル
<初/二36a>	京	셔울은 인군(人君) 계신 데요
		京ハ 国王ガ ゴザナサル 処デアリ
<校訂/188>	京	셔울은 인군이 게신 데오
		都は 国王の ゐられる 処です。

www.kci.go.kr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이처럼 한국어의 語形(表現)에 따라서 일본어의 대역 형태를 대응시키려는 경향을「朝鮮資料에서의 <対訳性>」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역성은, 초간본 정도는 아니지만, 교정본에서도 일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현상으로, 교정본에서는 그와 같은 대역성을 무시하고「ダ」로 통일하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초간본에는 당시의 언어현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휘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인정되는 반면에, 사본류의 내용을 계승하는 보수적인 문말표현도 相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역의 일본어가「デアル」와 같은 문장어적 문말표현으로 나타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외에도 規範性과 관련한 동사의 二段化, 非音便化와 같은 문법적 사항이 초간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에 비하여 교정본은 회화문적인 일본어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은「だ」와 함께 문말에 나타나는 감탄의「な」「わい」와 같은 구어적인 終助詞의 존재로부터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827]
<ア/一72a> 鳥 새 업ᄂᆞᆫ 셤의 ᄇᆞᆰ쥐로쇠
トリ ナイ シマノ カウムリデコサル
<初/一56b> 鳥 새 업는 셤에 박쥐로구나
鳥 ナキ 島ノ カウムリデアル
<校訂/080> 鳥 새 업ᄂᆞᆫ 셤에 박쥐로고나
鳥 なき 里の 蝙蝠だな。
[3370]
<苗/三27a> 犯馬 범마ᄒᆞ고 가니 인ᄉᆞ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로쇠
ノリウチシテ ユキテ 人事 シラン ヒトデコサル
<初/三39a> 犯馬 범마(犯馬)허고 가니 인ᄉᆞ(人事) 모로는 사ᄅᆞᆷ이로다
ノリウチシテ ユイテ レイギヲ シラヌ 人デアル
<校訂/205> 犯馬 범마(犯馬)를 ᄒᆞ고 가니 인ᄉᆞ(人事)를 모로ᄂᆞᆫ 사ᄅᆞᆷ이로고나
乗りうちを して 往くから 礼儀を わきまへない 男だわい。

3.1.2. 述語文[9)]

문말에 동사나 형용사(또는 일본어의 형용동사)가 와서 문이 終止되는 한국어의 술어문에서, 보통체인 경우는 일본어의 술어도 종지형으로 끝나는 것이

9) 여기서 '술어문'이란 '동사술어문'과 '형용사술어문'(형용사, 형용동사)을 가리키는 말로, 前述한 '명사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사문' '형용사문' '형용동사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www.kci.go.kr

일반적이다. 동사 · 형용사 · 형용동사의 순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動詞文

普通体文에서, 初刊本까지는 동사나 조동사의 종지형으로 문을 종결하는 동사문 형식이었던 것이 교정본에서는「ダ」에 의한 명사문으로 교정된 예들이 많다.

[2324]

<苗/二31b> 葡萄 포도ᄂᆞᆫ 잘 닉은 후에 먹ᄂᆞ니라
ブドフハ ヨフ ジクシテカラ クフ

<初/二24b> 葡萄 포도는 잘 닉은 후에 먹ᄂᆞ니라
葡萄ハ ヨク ジュクシテカラ クフ

<校訂/056> 葡萄 포도(葡萄)ᄂᆞᆫ 잘 닉은 후(後)에 먹ᄂᆞ니라
葡萄は よく 熟してから くふものだ。

[3522]

<苗/三38b> 宝釼 보검은 빗치 하ᄂᆞᆯ의 쏘이ᄋᆞᆸᄂᆞ니
宝釼ハ ヒカリガ テンニウツリマスル

<初/三51b> 宝劔 보검은 ᄂᆞᆯ 빗치 하늘에 쏘인다 허옵ᄂᆞ니
宝剣ハ 刃ノ 光リガ 天ニツラヌクト 申シマス

<校訂/165> 宝劔 보검(宝劔)은 ᄂᆞᆯ 빗치 하ᄂᆞᆯ에 쏘인다 ᄒᆞᄂᆞ니라
名刀は 刃の 光りが 天までもとゝくと いふことだ。

이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초간본까지는 동사나「マス」와 같은 공손함을 나타내는 조동사의 종지형으로 문을 종결하는 동사문의 형식인 것에 비하여 교정본에서는「もの, こと, の」와 같은 형식명사를 사용하고, 거기에 단정의 조동사「ダ」를 붙여서 문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대역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전형적인 명사문 형식으로, 초간본의 일본어가 주로 동사문 형식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현상이다. 물론 다음의 예처럼, 동사문인 초간본의 한국어에 교정본에서 '거시니라'를 추가하고, 그 대역으로서「ものだ」를 사용하여 문을 종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위에서 든 예들처럼, 한국어문이 초간본과 동일한 동사문이면서 교정본의 일본어문은 명사로 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정본은 이 명사문의 형식을 일본어문의 기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3352]
<初/三38a> 草轎 초교는 부모 상 당(当)ᄒᆞᆫ 상제가 ᄐᆞᄂᆞ니라
草轎ハ 父母ノ 喪ニ逢タ 喪制ノ人ガ ノル
<校訂/201> 草轎 삿갓가마ᄂᆞᆫ 부모상(父母喪)을 당(当)ᄒᆞᆫ 상제(喪制)가 ᄐᆞᄂᆞᆫ 거시니라
草轎は 親の忌のかゝってゐる人が 乗る ものだ。

그리고 교정본에서의 이와 같은 명사문 주도는 당시의 일반적인 구두어,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운 회화체적인 일본어문으로의 교정이라고 하는 교정자의 편집 의도가 그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과 같은 문말표현을 통해서도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179]
<初/四14a> 食言 거즛말을 ᄒᆞ여 무어세 쁠꼬
ソラゴトヲ云フテ 何ニセウカ
<校訂/270> 食言 거즛말을 ᄒᆞ여 무어세 쓸고
うそをいって 何になるんだ。

한편 동사문의 공손한 표현은, 사본류에서는「マスル」가 주로 사용되고 초간본에서는「マス」형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교정본에서는「マス」형과 더불어「名詞+ダ」의 공손한 표현인「名詞+デス(デゴザイマス)」의 형식이 주가 된다.

[4533]
<苗/四38b> 元 읏듬을 졔일이라 ᄒᆞᄋᆞᆸ닉
イチハンヲ ダイイチト 云マスル
<初/四39b> 元 읏쯈을 뎨일이라 허옵네
イチバンヲ 第一ト 云ヒマス
<校訂/304> 元 읏듬을 뎨일(第一)이라고도 ᄒᆞ옵닉다
一番といふことを 第一とも 申します。
[3486]
<苗/三35b> 紙 둉회ᄂᆞᆫ 듕들이 ᄊᆞᄋᆞᆸ닉
カミハ 僧トモガ スキマスル
<初/三47a> 紙 죵희는 즁들이 ᄊᆞ옵네
紙ハ 僧共ガ スキマス
<校訂/161> 紙 죠희ᄂᆞᆫ 즁들이 ᄊᆞ옵닉다
紙は 坊主が 漉くものでございます。

www.kci.go.kr

[4533]의 예처럼 교정본에서 초간본과 같은 조동사「マス」를 문말표현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도,「マス」가 접속한 본동사(여기서는「云う」)를 가능한 한 공손한 말(여기서는「申す」)로 바꾸어 쓰고 있다. 초간본에 비하여 보다 공손한 표현을 의식한 교정본의 편집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교정본에서「デゴザイマス」와 같은 공손한 표현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겠다.

(2) 形容詞文

전통적인 형용사의 공손한 표현은 형용사의「ウ音便+ゴザル」形이다. 사본류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문말표현의 기본으로 되어 있고, 초간본에서도 그러한 사본류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 한편 교정본에는 주로「ウ音便+ゴザイマス」형태가 형용사문의 공손한 표현을 담당하고 있다.

[1218]

<ア/一20b> 隔 산과 믈이 막겨시니 가기 어렵ᄉᆞ외
山ト川カ隔テ 往キガトウコサル

<初/一17a> 隔 산과 물이 막켜쓰니 가기 어렵ᄉᆞ외다
山ト川ガ隔タリタニヨリ 往キニクウゴザル

<校訂/293> 隔 산(山)과 물이 막혓스니 속(速)히 가기 어렵ᄉᆞ외다
間に山や河があるので 急いで 往きにくうございます。

그러나 다음의 예처럼, 초간본에서 하게체의 '-데', 해라체의 '-니라' 등과 같은 한국어의 어미에 대응하는 방식으로「ゴザル」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 보조동사「ゴザル」의 대우표현가치는 상당히 희석된 것 같다. 교정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名詞+ダ」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426]

<対/一36b> 師 자닉ᄂᆞᆫ 놈의 스승의 불셔 되여시니 깃브외
ソナタハ 人ノ 師匠ニ トク ナラレテ ヨロコビマスル

<初/一30a> 師 자네는 놈의 스승이 불셔 되여쓰니 깃쎠데
ソナタハ 他ノ 師匠ニ トク ナラレタニヨリ ヨロコバシウゴザル

<校訂/107> 師 ᄌᆞ네ᄂᆞᆫ 불셔 놈의 스승이 되엿스니 깃부데
おまへさんは もう 人の 師匠に なったから 喜ばしいことだ。

[3408]

<苗/三30a> 戯 희ᄌᆞ ᄂᆞᄅᆞ시 보왐즉[죽]ᄒᆞ오니

www.kci.go.kr

キョウケンハ ミトウコサル

<初/三42b> 戱子 희[휘]ᄌᆞ(戱子) 노릇시 보왐즉허데
狂言ハ オモシロウゴザル

<校訂/186> 戱子 희ᄌᆞ(戱子) 노롬이 보암즉ᄒᆞ데
道化は 面白いものだ。

[3902]

<文/三61b> 癢 ᄀᆞ려온 ᄃᆡ롤 글그면 쉬훤ᄒᆞ오니
カユイ 処ヲ カケバ キミガヨイ

<初/二52a> 癢 ᄀᆞ려운 데를 되우 글그면 시원허니라
カユイ 処ヲ キツク カケバ キミガヨーゴザル

<校訂/143> 癢 ᄀᆞ려운 데를 되오 긁[굵]으면 시원ᄒᆞ니라
かゆい 処を 思ひきり 掻くのは いゝ気持だ。

[4617]

<小/四45b> 聒目 눈을 스ᄉᆞ다가 보니 과연 귀ᄒᆞ외
目ヲハラウテ 見ルニ マコトニ メヅラシウゴサル

<初/四45a> 刮目 눈을 씻ᄭᅩ 다시 보니 과연(果然) 귀(貴)허다
目ヲハラフテ 更ニ ミルニ マコトニ メヅラシイ

<校訂/126> 刮目 눈을 씻고 자세(仔細)히 보니 춤 귀(貴)ᄒᆞ다
目をこすって よく 見てみると どうも 大したものだ。

이처럼 형용사문도 동사문의 경우와 동일한 경향이다. 초간본까지는 일본어 형용사의 종지형으로 문을 맺거나, 또는「ゴザル」와 같은 공손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를 사용한 문말표현이 일반적이다. 그에 비하여 교정본은 역시「もの, こと」와 같은 형식명사를 사용한 문말표현 중심이다. 설령 형식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語節의 倒置(いい気持だ)나 관용적인 표현(大したものだ) 등을 사용하여 명사문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대역의 일본어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편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교정본의 형용사문에는 이밖에도 주로 부정표현과 관련한 ウ音便이 일어나지 않은「-くございませぬ」, 그리고「-くありませぬ」「-くない」와 같은 현대어적인 부정표현이 소수 보인다. 모두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형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만 제시한다.

[1742]

<ア/一64a> 汗 ᄯᆞᆷ이 만히 나면 일신의 진익이라 좃치 아니ᄒᆞ외
アセガ ヨケイニ デレハ 一身ノ 津液デ ヨウコサリマセヌ

<初/一50b> 汗 ᄯᆞᆷ이 만이 나면 일신에 진익이 ᄲᅡ지니 됴치 아니허오니

www.kci.go.kr

汗ガ ヨケイニ 出レバ 一身ノ津液ガ ヌケルニヨリ ヨウゴザリマセヌ

<校訂/120> 汗 ᄯᅳᆷ이 만히 나면 일신(一身)의 진익이 빠져셔 됴치 못ᄒᆞ、오

汗が ひどく出ると からだの あぶらか ぬけるのでよくございませぬ。

[2533]

<苗/二47a> 樑 져근 집의 둘부가 너모 크면 좃치 아니ᄒᆞᄋᆞᆸ데

ホソイ イヘニ ウツバリガ アマリ フトケレハ ヨロシウゴサラヌ

<初/二34a> 樑 젹은 집에 들뽀가 너모 크면 둇치 아니허외

ホソイ 家ニ ウツバリカ アマリ フトケレバ ヨウゴザラヌ

<校訂/193> 樑 젹은 집에 들보가 너모 크면 둇치 아니ᄒᆞ외다

小さい 家に 梁が 太と過ぎると よくありませぬ。

[2383]

<苗/二36a> 板 널은 공이 업서야 쓰ᄂᆞ니라

イタハ フシカ ノフシテコソ モチユル

<初/二28b> 板 널은 옹이가 업서야 쓰느니라

板ハ 節ガ ナクテコソ 用ダツ

<校訂/047> 板 널은 옹이가 업셔야 쓰ᄂᆞ니라

板は ふしかあってはよくない。

(3) 形容動詞文

형용동사 활용을 하는 比喩나 例示를 나타내는「ようだ」, 様態를 나타내는「そうだ」와 같은 조동사를 포함하여 형용동사문의 문말표현은, 우선 사본류에서 보통체인 경우「ナ」와「ニアル」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초간본은 그와 같은 사본류의 일본어를 답습하고 있다.

[4380]

<苗/四26b> 旧 ᄂᆞᆯ근 거시라 ᄒᆞ여도 녯거시 ᄃᆞᆫᄃᆞᆫᄒᆞ니라

フルイ モノト 云テモ ムカシノ モノガ ジャウフナ

<初/四28b> 旧 ᄂᆞᆯ근 거시라 허여두 녯꺼시 ᄃᆞᆫᄃᆞ허니라

旧ルキ モノト 云フテモ 昔ノシナデ ジャウブナ

<校訂/020> 旧 ᄂᆞᆱ은 거시라 ᄒᆞ여도 녯거시 ᄃᆞᆫᄃᆞᆫᄒᆞ니라

旧いものでも 昔のものは 丈夫だ。

[3031]

<ソ/三26b> 雨装 우장 출려 가져가쟈 오ᄂᆞᆯ은 비 올 ᄃᆡᆺᄒᆞ다

アマグ ソロエテ モッテユカウ ケウハ 雨ガフリサウナ

www.kci.go.kr

<初/三18a> 雨装 우장(雨装) ᄎᆞ려 가져가쟈 오늘은 비 올 듯ᄒᆞ다
アマグ ヨウイシテ 行ウ ケフハ 雨ガフリサウニアル
<校訂/232> 雨装 우장(雨装)을 ᄎᆞ려 가져가쟈 오ᄂᆞᆯ은 비가 올 듯ᄒᆞ다
雨具を 用意して 行かふ けふは 雨かふりそうだ。

이러한 것들이 교정본에서는 모두「ダ」形으로 통일되게 되는데, 다음의 예처럼 초간본에서 이「ダ」의 원형에 해당하는「デアル」로 쓰이는 예는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2443]
<苗/二40a> 査 등걸의셔 다른 남기 나니 괴이ᄒᆞ외
キリカブヨリ ホカノ キカ テヽ フシキニコサル
<初/二31b> 査 등걸에셔 다른 남기 나니 고이(怪異)허다
キリカブヨリ ヨノ 木ガ 出テ フシギデアル
<校訂/046> 楂 등걸에셔 ᄃᆞ른 남기 나니 고이(怪異)ᄒᆞ다
切株から 外の 木が 出てるから 不思議だ。

결과적으로「名詞+ダ」일 경우에는「デアル」형태를 사용하고, 형용동사 어미의「ダ」일 경우에는「ニアル」를 사용함으로 両者를 구별하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ニアル」와 관련하여, 형용동사의 공손한 표현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즉, 초간본에서는 사본류를 답습하여「ニ」에「アル」의 공손어「ゴザル」를 붙인「ニゴザル」의 형태가 기본으로, 명사문에서의 문말표현인「デゴザル」와는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본에서는 명사문과 마찬가지로「デス, デゴザイマス」形이 일반적이다.

[1028]
<ア/一04a> 風止 ᄇᆞᄅᆞᆷ이 계오 긋치니 죵용ᄒᆞ외
カゼガ 漸ク 止テ シヅカニゴザル
<初/一03b> 風止 ᄇᆞᄅᆞᆷ이 긋치니 죵용(従容)허외다
風ガ 止ミテ シヅカニゴザル
<校訂/006> 風静 ᄇᆞᄅᆞᆷ이 자니 죠용(従容)ᄒᆞ외다
風が 止みましたから 静かでございます。
[4121]
<小//四10a> 雑意 잡의[위]ᄅᆞᆯ 아라 피ᄒᆞ신가 보외
スイサツヲシテ サケラレマシタソウニゴサル

www.kci.go.kr

<初/四10a> 事情 ᄉᆞ졍을 아라 피ᄒᆞ신가 보외
事情ヲ察シテ 避ケラレタサウニゴザル
<校訂/295> 事情 ᄉᆞ졍(事情)을 알고 피(避)ᄒᆞ신가 보오
内情を 知って 避けておいでのやうです。

단, 초간본에서 이「ニゴザル」形을 주로 하면서 그것에 대신하는「デゴザル」의 용례가 증가하는 추세가 인정된다.

[2277]
<苗/二28a> 農 녀롬지만 힘써 ᄒᆞ니 긔특ᄒᆞ외
ノフサクバカリ セイダスニヨリ キドクニコサル
<初/二21a> 農 농ᄉᆞ(農事)만 힘써 ᄒᆞ니 긔특[툑]ᄒᆞ외
農作バカリ 精出シテ 奇特デゴザル
<校訂/217> 農 농ᄉᆞ(農事)만 힘써 ᄒᆞ니 긔특(奇特)ᄒᆞ외다
百姓を 一生懸命にしてゐますから 感心でございます。

이「デゴザル」는 당연히 「ニゴザル」보다 현대적인 형태로, 거기에 조동사「マス」가 붙어 구두어적으로 사용된 것이「デゴザリマス」이다. 현대어에서는 이「デゴザリマス」의「ゴザル」가 특수한 활용을 하여「ゴザイマス」와 같이 사용되는데, 교정본에서는 이「デゴザイマス」와 아울러「デゴザリマス」의 형태도 사용되고 있다. 초간본에서의「デゴザル」와 같은 예는 형용동사의 공손한 문말표현의 과도기적인 어형(語形)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2. 恭遜体文의 文末表現

「ダ」의 공손체인「デス」와「デゴザイ(リ)マス」가 교정본에서 사용된 경우를 보면, 교정본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이)오'에 대해서는「デ」, '-(이)외다' '-(이)올시다'에 대해서는「デゴザイ(リ)マス」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간본류의 예만 제시한다.

[1106]
<初/一09b> 寒食 한식은 이월이나 삼월이나 잇스되 개ᄌᆞ취 위ᄒᆞᆫ 날이니라
寒食ハ 二月ニデモ三月ニデモアリテ 介子椎ヲウヤマフ日デアル
<校訂/015> 寒食 한식(寒食)은 이월(二月)이나 삼월(三月)이나 잇ᄂᆞᆫᄃᆡ

www.kci.go.kr

개ᄌᆞ츄(介子椎)를 위(為)ᄒᆞᆫ 날이오
寒食は 二月または 三月に ありまして 介子椎の 日です。

[1188]

<初/一15a> 晦 그믐날은 그 ᄃᆞᆯ ᄆᆞ지막 날이오니
晦ハ 其月ノ ヲハル 日デアリマス

<校訂/023> 晦 그믐날은 그 ᄃᆞᆯ 다 가ᄂᆞᆫ 날이외다
みそかは その月の 終る 日でございます。

[3882]

<初/二51a> 瞽 쇼경(宵鏡)의 단청(丹青) 구경(求景)이올세
メクラノ カキノゾキデコザル

<校訂/143> 瞽 쇼경의 단청(丹青) 구경(求景)이올시다
盲の 彩色見でございます。

'-(이)오'는 上待에 속하는 서술격조사이다. 한편 '-(이)외다'와 '-(이)올시다'는 極上待로 '-(이)오'보다 공손한 표현이다. 이와 같은 한국어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일본어의「デス」나「デゴザイマス」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校訂者는 일단 한국어의 待遇度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표현가치를 일본어에 반영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연히 일본어의 조동사「デス」에 비하여「デゴザイマス」形이 대우도가 높은 공손한 표현이 된다.

물론 다음 예와 같이 '-(이)다'나 '-(이)니라'와 같은 해라체의 서술격조사에「デス」가 사용되거나, 하오체인 '-이오'임에도 불구하고「デゴザイマス」가 사용된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1589]

<初/一40b> 奠鴈 댱가갈 ᄯᅥ 뎐안허는 기러기로세
ムコ入スル トキ 奠鴈スル 鴈デゴザル

<校訂/096> 娶 쟝가(丈家)갈 ᄯᅢ 뎐안(奠雁)ᄒᆞᄂᆞᆫ 기럭이다
聟をとる 時分に 飾る 雁です。

[2591]

<初/三05a> 珠 구슬이 여러가지올세
珠ガ 色々デゴザル

<校訂/240> 珠 구슬이 여러가지오
珠は 色々でございます。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응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속하는 예로, 한국어의 하오체와「デス」, 하소서체나 합쇼체와는「デゴザイマス」가 대응하는 예문이 일

www.kci.go.kr

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역(대응)관계는, 명사문의 경우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술어문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용상의 경향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의 술어문에는 대우표현가치를 가지는 종결어미로 하오체의 '-오' '-소' '-옵데다', 하소서체의 '-외다' '-옵닉다' '-숩닉다'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 '-오'와 '-소'로 끝나는 술어문의 대역어로서는「デス」形이 일반적이고,「デゴザイマス」는 보다 공손한 표현인 '-외다'의 대역어로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158]
<初/三24b> 皮籠 가죽으로 쏜 농(籠)은 질긔오니
カワデ 包ンダ ツヽラハ ツヨウゴザル
<校訂/208> 皮籠 가족으로 싼 농(籠)은 질긔오
皮で張った 籠は 丈夫です。

[2589]
<初/三05a> 金 금이 뎨일 무겁ᄉᆞ외다
金ガ 第一 重ウゴザル
<校訂/238> 金 금(金)이 제일(第一) 무겁소
金が 一番 重いものです。

[4274]
<初/四21a> 称 일ᄏᆞ르시니 도루여 황숑(惶悚)허외다
オホメナサレテ カヘッテ オソレイリマス
<校訂/270> 称 너모 닐ᄏᆞ르시니 도로혀 황숑(惶悚)ᄒᆞ외다
余まり 御誉めに預かって 反って 恐縮の至りでござります。

[1578]
<初/一40a> 姉 맛누의는 가ᄉᆞ를 힘써 허니 거륵허오
姉ハ 家事ヲ ツトメテ スルニヨリ スサマシウゴザル
<校訂/094> 姉 노형(老兄)의 민씨(妹氏)ᄂᆞᆫ 살님사리를 잘ᄒᆞ니 갸륵ᄒᆞ시오
あなたの御姉さんは 世帯持が御上手だから 感心でございます。

또한 [1578]의 예처럼, 존경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가 있는 경우에는「デス」보다는「デゴザイマス」가 주로 사용된다.

이상, 교정본에서는「ダ」体·「デス」体·「デゴザイマス」体를 골격으로 対訳의 일본어문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文体는 口語文이라고 하는 문장 안에서 待遇表現価値에 의해 구별되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校訂本의 일본어가 정중한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회화문을 염두에

www.kci.go.kr

두고 작성된 만큼 그 중심에는「デス」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정본에서 이「デス」와 관련한「ませぬでした」 등과 같은 표현은 현대어의 완성단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53]
<初/一12b> 急 급히 쓰노라 허되 밋처 못되얏슴네
急ニ カヽントスレドモ マハヅ ヨクデキマセヌ
<校訂/019> 急 급(急)히 쓰노라고 ᄒᆞ엿것마ᄂᆞᆫ 밋처 되지 못ᄒᆞ엿소
急いてゐるつもりであったのですれども 間に合ひませぬでした。

결국 명사문 정도는 아니지만, 동사문 · 형용사문 · 형용동사문에서의 대역 일본어의 문말표현에서도 어느 정도 対訳性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와 동등한 대우표현가치를 가지는 문말의 조사나 어미에 대한 대역 일본어의 대응관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본류도 포함)

		写本類	初刊本	校訂本
名詞文	普通	ジャ (デアル)	デアル (ジャ)	だ
	恭遜	デゴザル	デゴザル (デアリマス)	です でござい(り)ます
動詞文	普通	動詞の終止形	動詞の終止形	動詞の終止形
	恭遜	マスル	マス	ます (名詞+です(でございます))
形容詞文	普通	形容詞の終止形	形容詞の終止形	形容詞の終止形(名詞+だ)
	恭遜	-ウゴザル	-ウゴザル	-うござい(り)ます (名詞+です(でございます))
形容動詞文	普通	ナ (ニアル)	ナ (ニアル)	だ
	恭遜	ニゴザル	ニ(デ)ゴザル	です でござい(り)ます

* ( ) 은 소수의 형태

www.kci.go.kr

4. 마무리

『交隣須知』의 사본류는 물론 그것의 전통을 잇는 초간본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국어문을 직역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일본어의 対訳文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초간본의 일본어는 文語体的인 성격이 강하였고, 따라서 당시의 생생한 일상어를 반영한다고 하는 언어의 시대성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반성으로부터 교정본에서는 적극적으로 당시의 口語를 채용하는 쪽으로 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校訂本의 일본어는 교정자인 마에마(前間) 등이 한국어 본문을 직역(直訳) 혹은 의역(意訳)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간섭,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의 대역 체재 형식에서 영향을 받기 쉬운 언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対訳性」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交隣須知』, 특히 간본류를 양국어의 史的研究資料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정본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교정본의 존재를 통하여, 초간본의 일본어가 언어의 시대성이나 보수성보다 한국어문을 직역하는 과정에서 대역성을 우선시하였을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대역성 문제는 당연히 다른「朝鮮資料」의 연구에도 고려되어야 하며, 당면 과제로서『交隣須知』의 通時的研究는 그와 같은 両国語의 時代性과 保守性 그리고 対訳性이 종합적으로 검토됨으로써 비로소 연구의 객관성을 높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서정수(1984) 『존대법연구』, 한신문화사
염광호(1998) 『종결어미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이경우(1998) 『최근세국어 경어법 연구』, 태학사
李基文(1972) 『国語史概説(改訂版)』, 搭出版社
片茂鎭(2005) 『「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 J&C(ソウル)
_____(2005) 『諸本対照 交隣須知』, J&C(ソウル)
_____(2006) 「「により」考」『表現研究』84 pp.38-46, (일본)表現学会
_____(2006) 「『交隣須知』日本語の特殊性」『比較文化研究』74 pp.1-10, 日本比較文化学会
홍종선(1997)「근대국어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연구2 - 근대국어-』pp.143-190, 국립국어연구원
坂梨隆三(1970) 「近代の文法Ⅱ」『講座国語史4 文法史』, 大修館書店
幣原 坦(1904) 「『校訂交隣須知』の新刊」『史学雑誌』15-12

www.kci.go.kr

要 旨

『交隣須知』の写本類はもちろんそれの伝統を引く初刊本においても、程度の差はあるにしても、韓国語文を直訳する形でなされた日本語の対訳文が中心であった。その結果、初刊本の日本語はどちらかというと文語調で、当時の生の言葉を反映するという言語の時代性からはやや距離があった。その反省から校訂本では積極的に当時の口語を取り入れる形で校訂が行われたものと見られる。校訂者の前間氏らが日本語文を「意訳」した所以であろうが、『交隣須知』の日本語にはまた韓国語の干渉、言い換えれば、韓国語との対訳の体裁から影響を受けやすい性質、つまり「対訳性」をも考慮の対象になると考えている。このような事情から、『交隣須知』なる書の、特に刊本類を両国語の史的研究資料として活用するためには校訂本の存在は必須的である。本稿では、校訂本の存在から、初刊本の日本語が言語の時代性や保守性より韓国語との対訳性を優先するという言語史的な背景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交隣須知』を初めとした朝鮮資料の通時的研究は、このような両国語の時代性と保守性そして対訳性が総合的に検討されてはじめて研究の客観性を高め得るもの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交隣須知、朝鮮資料、対訳資料、言語의 時代性、保守性, 対訳性

투　　고 : 2012. 8. 31
1차 심사 : 2012. 9. 15
2차 심사 : 2012. 10. 6

www.kci.go.kr